

해의

WORLD

# 미·중 관계악화 원치 않아

## 달라이·오바마 면담 후 갈등... 티베트 독립당위성 확인

티베트의 정치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와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비공개 면담으로 미·중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두 나라간 갈등이 향후 수개월간 더 악화될 개연성이 있다"며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의 자신감이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달라이 라마와 오바마 대통령은 2월 18일 백악관에서 면담을 가졌다. 미국은 중국의 반발을 의식해 언론의 취재를 막으면서까지 비공개로 면담을 진행했다.

로버트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오바마 대통령은 티베트가 중국으로부터 종교·문화 등 정체성을 지키는데 강력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중국인 이들이 면담한 직후인 19일 새벽 외교부 홈페이지에 마자오쉬(馬朝旭) 대변인 명의의 항의성명을 발표했다. 마 대변인은 "미국은 중국이 여러 차례 표명한 엄중한 항의의 뜻을 무시하고 오바마 대통령과 달라이 라마의 면담을 의도적으로 강행했다"면서 "중국인 이에 대해 강한 불만과 결연한 반대 의사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은 2008년 달라이 라마와 집견을 하면서 티베트의 독립을 지지한 바 있다. 당시 중국은 이들의 회동을 막기 위해 프랑스 리옹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중·EU 정상회담을 무기한 연기하는 등 여러 차례 경고로 보내기도 했다.

중국의 엄청난 보복을 받은 프랑스를 지켜보면서도 오바마 정부가 강력하게 달라이 라마의 면담을 추진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미국은 현재 재정적자와 무역 적자라는 쌍둥이적자로 취약한 경제 상황에 있다. 반면 중국은 2009년 기준으로 1960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냈고, 세계 외환보유액의 30% 가량인 2조3990억 달러를 보유해 4년째 세계 1



달라이 라마와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2월 18일 백악관 맵룸에서 면담하는 모습. 출처=백악관 홈페이지

위를 고수하고 있다.

중국인 이러한 자신들의 우위를 바탕으로 미국을 압박하며 세계 최강의 자리를 엿보고 있다.

미국은 경기 부양을 위해 제너럴모터스(GM)와 같은 미국 대표 기업에 막대한 재정을 지출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이 국채를 모두 팔아 버린다면 미국이 입는 타격은 엄청날 것이다. 따라서 2조 달러의 국채를 보유한 중국은 위협적인 존재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현재 미국은 중국에 위안화 절상을 요구하고 있다. '소비의 나라'였던 미국이 수출을 늘려 재정적인 여유를 되찾고 가격경쟁력에서 유리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미국의 요구에 중국은 요지부동하고 있다. 2008년 프랑스의 경우처럼 '무역보복', '국채보복'이라는 두 가지 카드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는 1월 29일 대만에 블랙호크 헬리콥터와 패트리엇 미사일을 포함한 67억 달러 규모의 무기를 판매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2월 25일 중국 국방부 황쑹핑 대변인은 "중국은 미국과 대만에 군사협력의 철회를 요청하며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중국에 연달아 자극을 주었던 미국은 '달라이 라마 집견'으로 중국의 가장 민감한 부위를 건드린 셈이 됐다.

미국과 중국이 실업률 위를 걷는 것 같아 보이지만 악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2월 18일 대통령 집무실이 아닌 백악관 맵룸(map room)에서 달라이 라마를 만났다. 대통령 집무실은 상징성이 매우 크지만 맵룸은 비정치적인 일방적인 면담할 때 주로 쓰이는 곳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미국이 중국에 성의를 보인 것"이라고 말한다. 이 같이 생각한 데에는 중국이 세계 최대 핵추진 항공모함인 미국의 니미즈호의 홍콩 입항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민감한 상황에도 미국의 배를 입항시킨 것은 중국이 긴장의 수위를 그만큼 높이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미국, 중국 두 나라의 관계가 악화됐잖아 서로가 잃는 것은 더 크기 때문일 것이다.

미국과 달라이 라마의 회동에는 미국의 정치적 의도가 강하게 작용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두 정상이 만남으로써 티베트는 한번 더 국제적 관심과 독립에 대한 당위성을 얻는 기회를 갖게 됐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나은 기자

# 다문화 자녀를 글로벌 인재로...

## 한국다문화센터, 제1회 다문화 이중언어 경진대회... 박선화·왕쑹징 대상

"통·번역사가 돼 한국과 일본의 문화차이를 올바르게 전하는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피부와 문화가 다르다는 이유로 혼혈인을 차별하지 말고 글로벌 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들을 대할 때 비로소 세계 속의 대한민국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고등학교 입학 앞둔 양준태 군(17·순천 제일고)이 유창한 한국어·일본어 실력으로 150여 명 중 최상위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전환의 중요성을 발표했다.

한국다문화센터(공동대표 보선·김의정)는 2월 25일 서울 중구 매일경제신문 12층 대회의실에서 전국 최초로 '제1회 다문화 이중언어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매일경제신문사 주최, 한국다문화센터·배화여대 주관으로 열린 경진대회에는 양준태군과 같은 다문화가정 자녀와 부모 80여 명이 한국어와 제2 모국어 실력을 뽐냈다.

이날 열린 행사는 결혼이주여성과 이주노동자의 한국어 능력을 강화하고, 다문화 자녀의 이중언어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보선 스님은 "이주민의 한국사회 통합과 다문화 자녀의 글로벌 인재로의 육성을 목표로 추진된 것으로 전국적 차원에서는 최초"라고 설명했다.

이중언어 경진대회는 성인부와



다문화 이중언어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수상자들이 상장을 보이며 웃고 있다.

학생부로 나뉘어 치러졌다. 성인부 참가자는 중국·일본·베트남·키르기스스탄·우즈베크 등 7개국 출신의 결혼이주여성 40여 명과 외국인 노동자 40여 명이 참가했으며, 학생부는 일반 초·중·고에 재학중인 다문화가정 자녀 40여 명이 참가했다.

성인부 참가자들은 한국문화와 한국적응기 등을 주제로 3분 동안 자유롭게 발표했다. 학생부는 5분 동안 한국어와 제2 모국어를 함께 사용해 △학교생활 △꿈 △장래희망 △우리가족 소개 중 한 가지 주제를 발표했다.

일본인 엄마를 둔 양준태 군은 한·일간의 갈등으로 인해 학교생활에서 겪었던 에피소드를 들려줬다.

양군은 "2009년 WBC 한·일전 야구 중계를 볼 때였다. 학급친구들이 '누가 이기면 좋으냐?'는 질문을 했다. 가끔씩 날아오던 '독도는 누구 땅이야?' 라는 질문과도 굉장히 흥분 초조고에 재학중인 다문화가정 자녀 40여 명이 참가했다.

성인부 참가자들은 김치, 절하기 등 낮은 한국 문화 때문에 빚어진 일화를 들려줘 청중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학생부 부문에서 대상을 받은 박선화(9·부여 양화초)양은 "대상을 받아 기분이 매우 좋다. 엄마는 태국 사람인데 엄마와 함께 대화를 위해

매일 연습했다. 아빠랑은 한국말로 엄마랑은 태국말로 말한다"고 말했다.

선화양의 어머니 와사나(45)씨는 "다문화가정 아이들은 엄마의 모국어도 함께 배우고 싶어 하지만 시댁에서 이중언어 습득을 꺼려한다"며 "이중언어 경진대회가 많아져 아이들이 자부심을 갖고 외국어를 많이 배웠으면 한다. 평소 태국어로 대화한 덕분에 선화는 언어습득능력이 뛰어나다. 현재는 태국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를 말하며 학급에서도 1등을 놓치지 않는다"고 자랑했다.

한편 이날 성인부 대상은 왕쑹징(32·중국씨가 받아 고국방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김성희 한국다문화센터 사무장은 "언어학자들이 따르면 아이들은 5개 언어를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다문화가정이 가진 언어 경쟁력 발휘를 위해서는 이중언어 경진대회같은 프로그램이 더욱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대부분 다문화가정에서는 한국말을 제대로 배우지 못할 것 같다는 불안감에 외국 출신 어머니가 아이에게 자신의 모국어 가르치기를 싫어한다"며 "외국어를 할 때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스트레스를 주는 사례가 많아 이중언어 구사의 장점을 살리지 못한다"며 안타까워했다.

이나은 기자

## "일본은 공식사죄·배상하라"

### 나눔의집 피스로드 2010 열려

"일본 정부에 공식적인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사죄와 배상만으로 할머니의 고통과 한이 풀리지는 않을 것이며 우리는 문제의 본질을 깨닫지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일본 대학생 스즈키 켄스케군이 자유발언자로 나서 일본대사관을 향해 외쳤다.

나눔의집 부설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대표 월주)은 2월 21~26일 삼일절을 앞두고 '피스로드 2010 Spring'을 개최했다.

피스로드는 한·일 대학생들이 일

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고통을 체험하고 위안부 문제를 토론하는 워크숍 프로그램으로 2002년 시작돼 매년 2·8월 두 차례 진행된다. 켄스케군을 포함해 피스로드에 참가한 한국·일본·대만 대학생 32명은 워크숍 셋째 날인 24일 일본 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906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시위에 참가했다.

학생들은 5일간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견학, 위안부 할머니와의 만남, 수요시위 등의 일정을 진행했다.

이나은 기자

## 新노인문화 창출 '차별화' 매진

### 서울노인복지센터 3개년 운영계획 밝혀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가섭)는 2월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재수탁 협약에 따른 3개년 운영 계획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가섭 스님은 "노년에 들어선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유입에 따라 어르신들에게 보다 차별화·전문화된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노인복지센터는 4대목표인 △건강지원강화 △新노인문화 창출 △노인주체의 사회참여 활동 선도 △노인상담을 통한 권

익보호를 주요골자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가섭 스님은 특히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스님은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초건강 증진사업을 강화할 것"이라며 "복지관형 건강증진센터를 체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신속 정확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회원 건강정보 데이터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나은 기자

INBEX 2010 www.inbex.kr

# 2010국제불교문화박람회

## International Buddhism Culture Exhibition 2010

전통과 예술이 살아 숨쉬는 한국 서남부의 중심도시인 광주에서 우수한 호남의 전통 불교문화를 바탕으로 2010년 04월 15일부터 18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10국제불교문화박람회(INBEX2010)를 개최합니다.

2010국제불교문화박람회(INBEX2010)는 호남지방의 독특하고 우수한 전통불교문화를 기반으로 호남의 대찰과 주요사찰들이 사찰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고 불교 관련 기업들이 대거 참여하여 상호간의 정보를 교환하고 공유하며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2010국제불교문화박람회(INBEX2010)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가와 관심을 기대합니다.

### 전 시 구 성

- 사찰 및 템플스테이 홍보관
- 지자체 관광 및 특산물 홍보관
- 불사용품, 불교용품, 생활용품, 차, 식품
- 사찰건축·불교장례 등 불교관련 용품 및 산업 품목

### 문 화 행 사

- 불교의상 전시 및 패션쇼
- 전국 대학생 우리옷 공모전
- 법배 시연, 법고 시연, 불교무예 시범
- 전통차 시연, 사찰음식 전시 및 시식

### 참 가 문 의

## 2010국제불교문화박람회[INBEX2010]사무국

담당 사무국장 박철희 www.inbex.kr E-mail\_inbex2010@naver.com  
Tel\_062) 383-6322 Fax\_062) 228-9972 H·P\_010-7191-6322



2010. 04. 15(목) ▶18(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제 1전시장

주최 | BBS 광주불교방송, 불교신문 광주·전남지사  
(주)엑스퍼트

후원 | 금산사, 대흥사, 백양사, 선운사, 송광사, 화엄사,  
여수세계박람회불교위원회

